











구룡사



구룡사 유래 (龜龍寺 由來)

지악산의 으뜸 봉우리인 비로봉에서 학곡리 쪽으로 약6km 떨어져 있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는데, 전설에 의하면 원래 대웅전 자리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곳에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

의상은 연못 자리가 좋지 그곳에 절을 지으려고 용들과 도술시합을 하여 용들을 물리치고 절을 지었고, 아홉마리의 용이 살았다하여 구룡사(九龍寺)라 이름 하였다고 합니다.

조선시대에 들어 사찰이 쇠락하게 되었는데, 어느 날 한 노인이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진 것이라 하여 활을 끊었는데 이후 절이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. 절이 더이상 운영되기 어려워 폐사가 되려할때 이번에는 한 도승이 나타나 절이 더욱 쇠약해진 것은 활맥을 끊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. 그때부터 거북바위를 살리는 뜻에서 절 이름을 구룡사(龜龍寺)로 바꾸었다고 합니다.











